

**<서울의 봄> 정우성, 서울 잠실야구장 등판!**

**바로 오늘, 11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한국시리즈 2차전 시구 확정!**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의 정우성이 바로 오늘, 11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한국시리즈 2차전 경기의 시구에 나선다. [감독: 김성수 |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 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

**<서울의 봄>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신념을 보여줄 이태신 역 정우성**

**한국 시리즈 시구로 11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마운드 밟는다!**

**LG 트윈스 VS KT 위즈 2차전을 더욱 뜨겁게 달구며 승리의 기운 전할 예정!**

****

**<서울의 봄>은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에서 일어난 신군부 세력의 반란을 막기 위한 일촉즉발의 9시간을 그린 영화.** <서울의 봄>에서 신념과 충성심을 가진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을 열연한 정우성이 바로 오늘, 11월 8일(수) 오후 6시 30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펼쳐지는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한국시리즈 2차전의 시구자로 나선다. 정우성의 승리 기원 시구 이벤트는 많은 야구팬들 사이 열기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장르를 넘나들며 강인함과 부드러움이 공존하는 연기로 사랑받아 온 정우성은 <서울의 봄>에서 수도 서울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반란군에 맞서는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 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승리의 기운을 가득 담은 정우성의 시구는 한국시리즈 2차전의 시작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한국 영화 사상 처음 12.12 군사반란 모티브로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으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영화 <서울의 봄>은 오는 11월 22일 개봉해 긴박했던 그날 밤 이야기 속으로 관객들을 초대할 예정이다.

**INFORMATION**

제목: 서울의 봄

영제: 12.12: THE DAY

감독: 김성수

출연: 황정민, 정우성, 이성민, 박해준, 김성균 외

제공/배급: 플러스엠 엔터테인먼트

제작: ㈜하이브미디어코프

러닝타임: 141분

관람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개봉: 2023년 11월 22일

**SYNOPSIS**

**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발생**

**그날,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10월 26일 이후, 서울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도 잠시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광이 반란을 일으키고

군내 사조직을 총동원하여 최전선의 전방부대까지 서울로 불러들인다.

권력에 눈이 먼 전두광의 반란군과 이에 맞선 수도경비사령관 이태신을 비롯한

진압군 사이, 일촉즉발의 9시간이 흘러가는데…

**목숨을 건 두 세력의 팽팽한 대립**

**오늘 밤, 대한민국 수도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이 펼쳐진다!**

**영화<서울의 봄>에 대한 문의는**

**앤드크레딧&credit 02-543-191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